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BIGGERERS

가제 : 반려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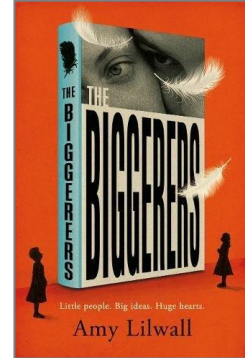
저자 : Amy Lilwall

출판사: Point Blank

발행일: 2018년 6월 7일

분량 : 528 페이지

장르 : SF소설



- * ‘Book Riot’ 선정 2018년 우수 도서 - “온전한 크기의 인간이 미니 사이즈 인간을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디스토피아적 세상에서 벌어지는 블랙 코미디. 추측에서 나온 신랄한 이야기는 충격과 함께 놀라운 독창력으로 마음을 사로 잡는다.”
- * “재미와 우스꽝스러움, 심각하게 겹이 나는 상황 사이를 절묘하게 넘나든다. 엄청난 데뷔작.” - 『The Many』의 작가 월 멘무어

사람이 사람을 애완동물처럼 키운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처럼 그 목적이 ‘반려’가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섬뜩하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상황을 그린 SF 데뷔작이 완성됐다. 고양이를 키우면서, 인간과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고양이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삶의 한계를 생각하다 이 소설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저자는, 크기도 언어 능력도 지능도 진짜 인간보다 크게 부족한 애완용 인간이 보편화된 세상의 풍경을 보여준다. 인간성의 의미, 인간 위주로 정해지는 규범과 질서, 도덕과 윤리를 다시 고민하게 하는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소설이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뒤, 영리한 과학자들은 의학의 발달에도 도통 해결이 안 되는 인간의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떠올린다. 줄기세포로 인간의 장기를 실험실에서 만들어내고 다른 동물에 이식하여 활용하는 대신 아예 똑같은 장기를 가진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인간의 생활에 방해가 되면 안 되므로, 이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질 복제 인간은 사람과 동물의 중간쯤 되는, 애매한 생명체로 만들기로 한다. 키는 30 센티미터 정도, 기본적으로 말은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 일명 ‘리틀러’들은 꼭 필요한 때가 올 때까지 인간과 함께 살면서 보살핌을 받는다. 봉봉과 징크스도 바로 이런 용도로 수전의 집에 살고 있는 미니 인간, 리틀러다. 앞서 만들어진 리틀러들과 차이가 있다면, 인간이 만든 모든 기술이 그렇듯 버전이 업그레이드

드될 때마다 미세하지만 확실하게 인간이 더 쓰기 편한 쪽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즉 인간을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를 덜 일으키고, 조용하고, 인간의 생각과 별개로 독단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는 특징이 있다. 한 마디로 ‘덜 인간다운’ 미니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봉봉과 징크스는 아침에 일어나면 밥그릇부터 들여다본다. 수전이 가득 채워놓은 식사, ‘플레이크’라 불리는 짭짤한 고형 단백질을 열심히 씹은 다음에는 집 안팎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닌다. 머리카락도 짧고, 작은 돌멩이도 짧고 잔디로 나가 풀 조각이나 깃털도 뜯는다. 마당에 떨어진 실 조각이나 천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렇게 수집한 물건들은 돌이 함께 잠을 자는 전용 ‘바구니’로 갖고 가서 벽면이며 바닥을 열심히 꾸미는데 사용된다. 딱히 해야 하는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대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부리나케 현관으로 나간다. 수전이 들어설 때 문 옆에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고 눈을 반짝이면, 수전은 차례로 머리를 쓰다듬으며 방긋 웃은 다음 밥그릇에 다시 플레이크를 채워준다.

미니 인간을 들이는 사람들을 위해 제작된 ‘리틀러 매뉴얼’에는 이 소형 인간들이 어쨌든 인간을 원형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언어 능력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 나와 있지만, 인간과 리틀러 간의 언어적인 대화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생감새는 비슷할지언정 서로의 역할은 명확히 다르다는 사실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리틀러끼리 이야기하는 건 상관없다. 징크스와 봉봉은 자신들이 리틀러의 전체적인 특징에서 조금씩 벗어난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는다. 분명 다른 리틀러들보다 최신 버전이라 인간성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은 서로 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날이 갈수록 어휘력이 늘어난다. 그리고 단조로운 일상이나 눈 앞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봉봉과 징크스는 이런 자신들의 능력이 탄로날 경우, 곧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수전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몸이 아프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부당한 건 참을 수 없는 감정을 숨긴 채로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게임이나 영화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다가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어떤 기분일까? 수전은 봉봉과 징크스가 크기만 작을 뿐, 자신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만다. 노인들처럼 돌봐줄 필요도 없고, 한 시도 한 눈 팔 거를도 없이 보살펴야 하는 어린 아이들과 달리 그저 알아서 먹고, 자고, 생활하며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깨끗한 장기를 분리해서 쓰려고 키우는 리틀러로 만들어졌지만 유전자 깊숙이 남아 있는 인간의 본질, 능력, 기능이 유독 발달했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래도 ‘소유물’로 여길 수 있을까? 점점 더 인간다워지는 봉봉과 징크스가 인간을 엑세서리 같은 존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과정은 흥미로우면서도 인간 위주의 기술 발달이 가져온 무서운 폐해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독특하고 인상적인 SF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에이미 릴월(Amy Lilwall)은 켄트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와 박사 과정에 서 각각 현대 소설과 문예창작을 공부했다.

제목 : HOUSE OF GOLD

가제 : 황금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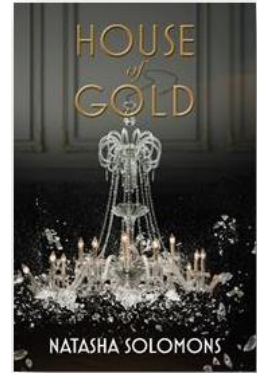
저자 : Natasha Solomons

출판사: Hutchinson

발행일: 2018년 5월 3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역사소설



★ 독일 판권 계약 / 작가가 직접 각본을 맡아 TV 시리즈로 제작될 예정

★ 인기 드라마, <더 크라운(The Crown)>을 떠올리게 하는 거대 권력 가문의 이야기

유럽 전체 정치와 경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골드바움 집안’은 대대로 금융권과 유럽 각국의 핵심 보직을 도맡아 왔다. 부와 권력을 모두 가진 이들의 위세는 먼 친척끼리 결혼해서 또 다른 골드바움의 자손을 낳는 것으로 더욱 탄탄하게 지켜졌고, 그레타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떤 남자를 좋아하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싶든, 그런 개인적인 취향이나 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골드바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가문을 위해 각자 주어진 몫을 해야 할뿐, 정해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을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1911년, 비엔나에서 나고 자란 스물한 살의 그레타 골드바움은 영국에서 탄탄한 뿌리를 내린 같은 집안 친척, 앨버트 골드바움과 부부가 된다. 전략적으로는 두말 할 나위 없이 완벽한 결합이었지만 그레타와 앨버트, 두 사람에게에는 정반대였다. 소설은 애정은 고사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여 낯선 외국 생활을 시작한 그레타의 삶을 따라가며, 막강한 권력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겪는 복잡 다난한 일들을 생생하게 그린다. 두 사람의 결혼으로 한층 더 단단해진 것 같았던 골드바움 집안의 영향력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맞아 지난 200년간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다. 총 2부작으로 완성될 시리즈 중 첫 권에서는 비엔나, 제네바, 파리, 런던을 오가며 전례 없던 변화의 고프머리에 내몰린 그레타와 골드바움 가문의 이야기를 다룬다.

사람들은 집에서 기르는 화초가 몇 그루인지 알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부지 내에 식물이 1만 그루 정도 있으면 대지주라 할만 하고, 2만 그루 정도면 준남작, 3만 그루쯤 되면 백작, 5만 그루에 이르면 공작 집안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런 기준에서 다 벗어난 곳이 바로 골드바움 가문이었다. 이들이 사는 곳마다 화초는 6만 그루가 훌쩍 넘었으니까. 그레타 골드바움도 태어날 때부터 그만큼 어마어마한 가족의 위력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랐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이 집안 사람인 것이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다른 아이들이 안됐다는 생각도 했다. 그렇다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로 자란 건 아니었다. 그냥 특별한 존재감이 줄었을 뿐, 그레타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만 쑥쑥 골라서 다 해버리는 아주 기막힌 능력이 있었다. 틈만 나면 집 대문을 벗어나 멀리 강가까지 달려가서 낯선 사람들과

한가로이 소풍을 즐기고, 오빠 오토가 대학에 다니기 시작하자 몰래 강의실에 함께 따라 들어가서 수업을 듣기도 했다. 오빠가 트럼펫을 배우기 시작하자 줄줄이 기다리는 피아노며 바이올린 레슨은 관심도 보이지 않으면서 굳이 트럼펫을 따라 배웠다. 여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얼굴을 시뻘겋게 만드는, 입으로 부는 악기는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금기 자체를 다 깨부수고 싶었다. 그러나 이 지칠 줄 모르는 반항심으로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결혼 문제였다.

비엔나에서만 살아온 그레타는 영국에 사는 친척 앨버트와 결혼해서 이제 그 나라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전해 들었고, 그걸로 끝이었다. 아무도 이런 결정이 괜찮은지 물어보지 않았다. 정해졌으면 따라야 하는 것이었으니까. 반항해도 소용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그레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앨버트의 아내가 된다. 문제는 두 사람이 처음 마주할 때부터 서로가 아주 격렬하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결혼 후 그런 그레타의 심정을 헤아린 앨버트의 어머니가 정원 가꾸는 일을 가르쳐주고 그레타가 혼자 뭐든 해볼 수 있는 정원을 내어주면서 괴롭기만 하던 영국 생활은 차츰 안정되기 시작한다. 자신이 그런 일에 흥미를 느끼리라곤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그레타는 식물을 다루고 흙을 만지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조금씩 영국이라는 나라에도 애정을 느낀다. 그 애정은 남편 앨버트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전쟁은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골드바움 집안 양쪽에 큰 그림자를 드리운다.

하원 의원인 앨버트에게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선에 서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고, 저 멀리 고향에서는 그레타가 사랑하는 오빠, 오토 역시 총대를 매고 군인으로 전장에 나선다. 전쟁터로 향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앨버트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오토는 연합군과 맞서기 위해 결성된 동맹국 소속이 된 것이다. 200년 세월을 굳건히 버텨온 유럽 최대 가문이 절반으로 쪼개질 수 있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그레타는 무조건 어느 한 쪽을 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태어날 때부터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준 오빠가 사는 곳이지만 낯선 외국으로 자신을 떠민 고국과 억지로 와서 살게 됐지만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영국, 그리고 혈육과 새로 가족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레타가 결혼을 하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1917년, 전쟁 속에서 가문 안팎을 뒤흔친 사건들을 따라가는 이야기를 통해 소설은 전쟁이 낳은 비극과 안타까운 갈등, 그 시대를 견뎌내야만 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여준다. 앨버트의 부친, 골드바움 경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권력 공백까지 생기고 앨버트가 전쟁터와 정치계를 오가며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애쓰는 사이, 영원히 변치 않을 줄 알았던 그레타와 오토의 형제애는 아슬아슬한 시험대에 오른다. 1권에서는 전쟁이 남긴 무수한 상처를 그리고, 이어지는 2권 『The Gold Balloon』에서는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한 골드바움 집안 사람들의 끔찍한 비극과 급변하는 시대가 불러온 그레타의 변화를 쫓아간다.

<저자 소개>

나타샤 솔로몬스(Natasha Solomons)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데뷔작 『Mr Rosenblum's List』를 시작으로 『The Novel in the Viola』, 『The Gallery of Vanished Husbands』 등을 쓴 소설가다. 현재까지 발표한 작품들은 18개 언어로 번역됐다.

제목 : THE BAR HARBOR RETIREMENT HOME FOR
FAMOUS WRITERS (AND THEIR MUSES)

가제 : 유명 작가와 그의 뮤즈를 위한, 바 하버 요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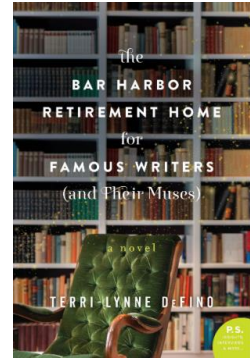
저자 : Terri-Lynne DeFino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8년 6월 12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독일 판권 계약

* 화려했던 시절은 가고 늙어가는 사람들, 견딜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더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이야기

평생을 책을 만들면서 보낸 사람들, 작가는 물론이고 편집자, 일러스트레이터, 표지 디자이너 등 출판계에 몸 담았던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요양원이 있다. 뉴잉글랜드의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한 ‘바 하버 요양원’은 작가였던 설립자의 유언에 따라 단 한 권이라도 책이 세상에 나오는데 일조한 사람만 신청을 거쳐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50년간 바 하버를 다녀간 사람들의 책들은 커다란 책장을 가득 메울 정도다. 바로 이곳에 문학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알폰소 카두치가 찾아온다. 후반기에는 영 예전 같은 찬사를 얻지 못하고 ‘이제 그 사람도 다 끝난 것 같다’는 혹평을 하는 사람들도 생겼지만, 전성기에는 발표하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워든 평균 이상으로 누리고 즐기며 살아온 그가 그 화려한 시절을 함께 했던 동료들과 조용히 생을 마감하기 위해 바 하버에 들어온 것이다. 평균 이상으로 누린 것에는 술과 파티, 술한 연애가 당연히 포함되고 서로 잡아 먹을 듯 날을 세웠던 라이벌들도 모두 포함된다. 즐거움도, 뿌듯함도, 스트레스도, 후회도 늘 한 가득 넘쳐나던 알폰소 카두치도 세월의 흐름은 이기지 못하고 이제 쇠약한 노인이 되어, 이제 바라는 것이라곤 동료들과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밥 하버 요양원에서 시작된 그의 새로운 삶은 카두치 자신에게도, 그의 열혈 팬이었던 잡역부, 세시벨 브링어에게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다. 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변화였다.

잡역부 세시벨은 여러모로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다. 요양원에서 의사, 간호사, 환자들의 끊임 없는 요구를 능수능란하게 맞춰서 해내는 성실함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녀에게는 도저히 모른 척 할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었다. 얼굴 반쪽이, 완전히 일그러져 거의 형체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저 오래 전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어디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굳이 말하지 않는 세시벨의 상처를 헤집지 않는 사려 깊은 요양원 사람들도 많았지만, 자꾸만 뒤를 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요양원 전속 의사인 킨츠 박사도 그 중 하나였다. 알폰소 카두치가 밥 하버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킨츠 박사는 세시벨의 선명한 흉터를 거론하며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데, 카두치는 세시벨이 그 누

구보다 기다렸던 사람이라 그의 생각 없는 발언은 더 큰 상처로 남았다. 아주 오래 전, 사고를 당하기 전에 세시벨이 작가를 꿈꾸던 어린 날에 카두치는 그의 롤 모델이었고, 대학에서 문학과 글쓰기를 공부하기로 마음 먹게 한 가장 큰 동력이었다. 그리고 여동생 제니퍼가 얹힌 비극적인 사고 이후에 세시벨이 유일하게 버틸 힘을 얻은 것도 카두치의 작품들이었다. 바 하버에서 일하는 이상 문학계의 내노라하는 명사들을 두루 만나 온 그녀도 설마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힘이 된 바로 그 알폰소 카두치와 만나게 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카두치가 평생을 평균 이상으로 즐기고 시달리며 살았다면, 일찌감치 과도함의 쓴맛을 톡톡히 경험한 세시벨은 최대한 몸을 숙이고 없는 존재처럼 살아온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둘의 만남은 생각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

카두치는 세시벨을 처음 본 순간부터 킨츠 박사의 말이 다 틀렸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겉으로 드러난 흥측한 얼굴 흉터는 그녀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눈에 심하게 띄는 그 상처 때문에 대부분이 놓치는 그녀의 몸짓에서, 카두치는 더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세상과 동떨어진 바 하버에 오고 나서야 지난 세월을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세월이 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위대한 작가라는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냉정히 버린 소중한 관계들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깊은 후회를 했다. 카두치는 크게 망가진 건강보다, 그런 회한이 바탕이 되어 언젠가부터 아예 진도가 나가지 않는 글쓰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 했다. ‘작가의 장벽’이 뒤통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그림자를 그에게 드리운 것이다. 그런데 베일에 싸인 세시벨은 카두치에게 수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세상 누구와도 비슷한 구석이 없는 그녀의 진솔하면서도 신비로운 매력은 이미 다 끝난 줄 알았던 작가로서의 열정에 다시금 불을 붙인다. 세시벨이 카두치의 문학적 영감을 일깨운 뮤즈가 된 것이다.

알폰소 카두치가 세시벨과의 만남으로 밤새워 다시 펜을 쥐고 글을 쓰는, 작가로서 가장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되찾았다면 세시벨 역시 가장 존경하고 고대한 이 위대한 작가를 통해 비로소 잊으려고 애써온 상처를 다시 꼬집어내고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를 얻는다. 집요한 킨츠 박사의 조사로 세시벨이 오래 전 대학에서 전공을 간호학으로 바꿨지만 학업을 다 마치지 못했다는 사실과 사고 후 외상 치료뿐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바 하버에서의 생활은 조금 더 불편해지지만, 세시벨은 덮어놓고 모른 척하기만 했던 여동생 제니퍼와의 비극적인 기억과 그냥 죽고만 싶었던, 그래서 자살 외에 아무 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되감으며 용서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카두치가 마지막으로 쓰는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세시벨, 그리고 실제 현실 속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점점 더 경계를 잃어가고, 그 속에서 모두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간다. 유쾌함과 감동, 위트가 모두 녹아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테리 린 드피노(Terri-Lynne DeFino)는 뉴저지에서 태어나 현재 뉴잉글랜드에서 소설가로, 고양이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 살고 있다. 저서로는 『Waking Savannah』, 『Dreaming August』, 『Seeking Carolina』, 『Beyond Gate』 등이 있다.

제목 : THE DOLLMAKER

가제 : 인형 제작자와 정신병원

저자 : Nina Allan

출판사: Riverrun/Quercus

발행일: 2019년 5월 7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판타지소설

- * “평범한 삶에 생경한 판타지의 느낌을 결합하여,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심오한 감동과 함께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 전작 『THE RIFT』에 대한 서평, 「가디언」
- * “기억과 상상, 그리고 우리가 생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방식에 관한 깊은 생각이 응축된 색다른 작품” – 전작 『The Race』에 대한 서평, 반스 앤 노블

‘에바 채플린의 삶과 작품에 관한 정보가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브램버 윈터스 앞으로 서신을 주세요.’ 인형을 만들고 수집하는 사람들이 주로 구독하는 월간지에 실린 이 짝막한 글은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었지만, 앤드류 가비의 시선을 붙들었다. 수년째 해온 습관대로 앞 표지부터 뒤 표지까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다 읽는 잡지라 이런 식의 광고가 수시로 올라온다는 사실을 앤드류도 잘 알고 있었다. 에바 채플린은 인형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한 이름이다. 폴란드 출신으로 영국에 이민을 와서 재봉사로 일하다가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고, 예쁘고 누가 봐도 갖고 싶은 대다수의 인형 대신 너무 사람 같아서 좀 섬뜩한 인형을 만들어내며 전 세계 수집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특이한 인형 제작자였다. 앤드류는 그의 작품들을 여러 번 봤지만 영 마음에 들지 않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그 인형과 그것을 만든 사람에 대해 광고를 낼 만큼 궁금해하는구나, 첫 느낌은 그랬다. 하지만 브램버 윈터스라는 이름이 앤드류에게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브램버는 영국의 어느 작은 마을 이름이고, 아무도 모를 그런 소소한 사실을 아는 자신이 이 광고를 봤다는 것 자체가 뭔가 신기했다. 앤드류는 광고를 낸 사람 앞으로, 동유럽 쪽의 인형 제작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수소문해보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이렇게 갑자기, 우연한 광고 하나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아주 특별한 만남으로 이어진다.

앤드류 가비가 인형에 푹 빠진 건 여덟 살 소년 때였다. 거의 매일, 학교가 마칠 시간쯤 앤드류를 데리러 온 엄마와 함께 작은 마을에 하나 밖에 없는 쇼핑 센터로 가서 느긋하게 장을 보곤 했는데, 몇 안 되는 선물가게 중 한 곳에 ‘마리나 블루’가 앉아 있었다. 진한 사파이어 색 반짝이는 눈,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밤색 머리카락, 몸은 천으로 만들어져 속에 두툼한 솜이 채워져 있지만 머리와 손, 발은 광택 없는 도자기로 만들어진 인형이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온통 마리나 블루 생각으로 꽂아버린 앤드류는 ‘인형은 여자애들이나 가지고 노는 것’이라는 엄마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매일, 3개월 뒤 생일이 될 때까지 정말 매일 그 인형 얘기를 했다. 이 때 타오른 열정은, 비단 마리나 블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인형의 세계, 그 자체에 흠뻑 빠져든 것이다. 더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것과 관심 없는 것이 워낙 뚜렷했던 아이라, 부모님도 앤드류의 새로운 집착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지했다. 어처구니 없어 하던 아버지마저 열여섯 살 생일에 인형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과서로 여겨지는 두툼한 책자를 선물할 정도로 앤드류의 특별한 꿈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게 이르렀다. 그가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 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화려하고 눈에 띄는 인형이 아닌, 가장 섬세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앤틱 스타일의 인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어온 괴짜 수집가이자 인형 제작자, 앤드류 가비는 사는 곳이 콘월의 ‘타퀸 엔드’에 위치한 어떤 시설이라는 사실과 이름 외에 아무 것도 모르는 브램버와 편지를 주고 받기 시작하고, 두 사람의 연락은 1년 넘게 꾸준히 이어진다. 마흔 개 가까운 인형을 모을 정도로 인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른 브램버는 자신과 같은 분야에 심취한 사람을 알게 된 것만으로 굉장히 기뻐하며, 앤드류에게 보내는 편지에 그 동안 누구에게도 마음 놓고 털어놓지 못한 인형 이야기를 늘어 놓는다. 처음에는 편지로도 충분히 즐거웠고, 직접 가서 브램버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앤드류는 해맑지만 우아하고, 독특한 개성이 느껴지는 브램버에게 점점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고 편지를 나눈 지 1년이 넘은 어느 날, 문득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을 떠올린다. 남들에게는 가벼운 여행이 될 수도 있는 이 일이 앤드류에게는 사실 여러모로 참 큰 결심이었다. 중학교 이후, 앤드류는 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어 혼자만의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키가 150 센티미터 이상 크지 않은, 짓궂은 아이들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불러온 ‘난쟁이’라는 점이 아마도 다들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 같았다.

자연스레 사는 이야기와 속 이야기를 꺼낸 편지가 오가던 중, 앤드류는 브램버도 어릴 때 잊지 못할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어두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된다. 브램버의 의지와 상관 없이, 누군가에 의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갇혀 있는 상태라면 구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몇 달을 망설이고 또 망설이던 앤드류는 마침내 콘월의 서쪽 끝, 브램버가 산다는 낮은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 먼 여행길에 동화 작가이기도 했던 에바 채플린의 이야기책을 읽던 앤드류는 그의 인형에서 느꼈던 오싹하고 등골이 서늘한 느낌이 동화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왜 브램버가 하필 에바 채플린에게 특별한 의미를 두는지 더욱 궁금해진다. 과연 브램버는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간 앤드류를 반겨줄까? 오랜 기간 편지로 끈끈한 우정을 나누었지만, 막상 눈앞에 난쟁이가 나타나면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온 얼굴에 거부감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마침내 브램버의 주소지를 찾아간 앤드류는 충격에 휩싸인다. 그곳은 그냥 평범한 주거 시설이 아닌, 정신병원이었다. 결말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할 수 없는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외면 당한 사람들에 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저자 소개>

니나 앨런(Nina Allan)은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을 써온 작가다. 소설 『THE RACE』로 존 W. 캠벨 상(John W. Campbell Award)과 BSFA 상 결선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단편소설로 BSFA 상, Grand Prix de L'Imaginaire, 이온 상(Aeon Award)을 수상했다. 영국 판타지 상 결선 후보에 네 차례 오르고 2014년에는 셜리 잭슨 상(Shirley Jackson Award) 결선에 진출했다.

NON-FICTION

제목 : VISIONARY WOMEN

가제 : 그녀들: 레이첼 카슨, 제인 제이콥스, 제인 구달, 앨리스 워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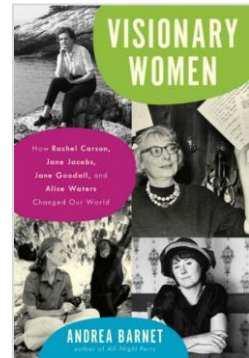
저자 : Andrea Barnet

출판사: Ecco

발행일: 2018년 3월 13일

분량 : 528 페이지

장르 : 페미니즘/여성/인문



- * “진실에 대한 열정을 갖고 기대가 무너져도 인내하며 1960년대에 도덕적 가치를 외친 네 명의 여성들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 『스티브 잡스』의 저자 월터 아이작슨
- * “네 명의 여성들과 그들의 성과에서 상호 연결된 부분을 날카롭게 찾아내고, 네 사람의 철학적 공통점과 1960년대와 그 이후의 문화에 자신의 비전을 토대로 영향력을 행사한 과정을 보여준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함께 제시되어, 네 가지 이야기가 마치 소설처럼 펼쳐진다.” – 『Benazir Bhutto: Favored Daughter』의 저자 브룩 앨런

전후 급속 성장에 혈안이 된 미국이 경제적인 성과와 효율성 외에는 아무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정면으로 내달릴 때 생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제인 제이콥스와 침팬지 연구로 인간 우월주의의 허점을 선명하게 입증해 보인 제인 구달, 무분별한 환경 오염과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여기는 접근법의 치명적인 오류를 경고한 해양생물학자 레이첼 카슨, 그리고 우리가 먹고 소비하는 음식을 다시 생각하게 한 앨리스 워터. 이들 모두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을 때, 혹은 나서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지만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네 명의 여성이다. 저널리스트이자 저술가인 저자는 변화를 너머 혁명이라 할 만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친 이들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이 네 사람은 직업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지만 기업 문화와 무차별적인 자연 파괴가 당연시되고 적극적으로 옹호된 1950-60년대의 거대한 사회적 변화에 무시할 수 없는 일침을 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레이첼 카슨은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으로 꼽히는 저서 『침묵의 봄』(1962)에서 살충제가 자연을 얼마나,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정확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기술 발전이 환경에 얼마나 엄청난 여파를 남기는지 드러내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 마찬가지로 제인 제이콥스는 저서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을 통해 인간 중심적인 도로 건설과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도시계획이 사람이 사는 곳, 도시 생태계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관련 시민 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탄자니아 정글로 건너간 제인 구달은 침팬지의 놀라운 지적 능력과 사회성을 밝힌 보고서로 인간이 가장 우월하다고 여겨온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앨리스 워터스는 환경과 농민, 요리사, 그리

고 이들이 생산하고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이 공생할 때 비로소 모두에게 가장 건강하고 유익한 식사가 탄생한다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며 대기업이 찍어낸 가공식품에 찌든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저자는 네 사람의 업적을 쫓아가는 한편, 각자 마음 속에 품은 비전을 세상 밖으로 표출하고 결과적으로 역사를 바꾸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보여준다. 네 사람이 결정적인 힘을 갖게 된 바탕에는 무기력하게 살던 사람들이 세상을 기존과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점, 비판과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서문

머리말: 파괴와 근절의 시대

1장. 레이첼 카슨

2장. 제인 제이콥스

3장. 제인 구달

4장. 앨리스 워터스

5장. 그들 속에서 찾은 희망

<저자 소개>

안드레아 바넷(Andrea Barnett)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1985년부터 「뉴욕타임스 북리뷰」에 정기적으로 리뷰를 기고해 왔다. 「스미소니언 매거진」, 「하퍼스 바자」 등에도 예술과 문화에 관한 글이 실렸다. 저서 『All-Night Party』로 2004년 람다 문학상(Lambda Literary Awards) 최종 후보에 올랐다.

제목: AUTUMN IN VENICE

가제: 가을날의 베니스: 헤밍웨이와 그의 마지막 뮤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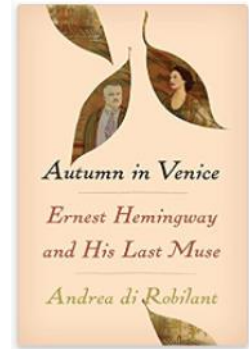
저자: Andrea di Robilant

출판사: Knopf

발행일: 2018년 6월 5일

분량: 368 페이지

장르: 문학/전기



★ 미국, 영국, 이탈리아에서 출간 예정

★ “이탈리아에서 얻은 몇 가지 정보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 등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작가의 삶을 참신하게 들여다본, 생생하고 인상적인 두 인물의 초상” – 「북리스트」

★ “한 작가의 좌절된 판타지에 관한 감각적인 이야기” – 「커커스 리뷰」

50세 생일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1948년 가을,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아내 메리와 함께 이탈리아에 도착했다. 네 번째 아내와의 시들해진 사랑, 10년째 도통 진도가 나가지 않는 집필 작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자 시작된 유럽 여행은 쿠바에서 출발하여 배를 타고 프랑스 남부에 내린 다음 프로방스를 거쳐 파리로 향할 계획이었으나, 배에 기계적인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제노바에 일단 내려야 했다. 20대 젊은 시절, 1차 대전이 끝나고 기자로, 첫 번째 아내와의 휴가지로 몇 번이나 찾았던 제노바 땅을 밟는 순간 그는 계획을 바꿔 이탈리아를 돌아보기로 결심한다. 북쪽으로 이동할 때까지만 해도 처음 계획했던 여행의 목표가 거의 다 이뤄진 것 같았다. 아내 메리도 헤밍웨이가 그토록 환하게 웃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본다고 느낄 정도였다. 그러나 12월 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베니스에서 휴가를 이어가던 헤밍웨이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 늪지대에서 오리 사냥을 하던 중, 한 눈에 시선을 모두 빼앗긴 여성을 만난 것이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소녀, 아드리아나 이반치치(Adriana Ivancich)가 그 주인공이었다.

저자는 이탈리아에서 아드리아나가 40대일 때 실제로 몇 번 보기도 하고, 친척들이 헤밍웨이와 가깝게 지내면서 특별한 인연을 맺은 덕분에 조금 남다른 시각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 접했고, 지금도 베니스 사람들이 마치 최근에 일어난 일처럼 헤밍웨이와 아드리아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다고 설명한다. 당시에든 언론을 시끄럽게 했던 50대 거장과 20대 소녀의 사랑이 그저 한 순간 끓어오른 감정이 아니라, 무려 8년이나 지속됐고 헤밍웨이의 대표작 『노인과 바다』도 그 과정에서 탄생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자는 ‘뮤즈’의 역할을 톡톡히 한 아드리아나와 헤밍웨이의 귀중한 만남을 이 책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따라간다. 향간의 소문과 달리 둘의 관계는 아드리아나가 직접 주장한 내용이나 저자 나름의 조사로 확인한 것처럼 플라토닉한 사랑 그 이상으로 번지지 않았고, 헤밍웨이는 주변 지인들이 ‘대놓고 그녀에게 폭 빠진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할 만큼 아드리아나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자신이 만든 추문에 아드리아나와 가족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이 관계를 일종

의 ‘신성한 유대’로 여기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구석이 있다. 문학계에서 헤밍웨이를 이미 ‘지나간 대가’로 여기며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혜성처럼 등장한 신인 작가들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 잡을 때, 창의력이 메말라 버렸다고 느껴 초조해하던 그 시기에 아드리아나는 소녀 특유의 쾌활함과 명랑함, 해맑은 에너지로 그 창작의 샘을 다시 살려냈다. 저자는 아드리아나가 대다수의 평론가가 밝힌 것처럼 『강 건너 숲 속으로』에 등장하는 레나타의 실제 모델이 된 것에 그치지 않고 헤밍웨이 가족과 함께 쿠바에 머물면서 『노인과 바다』를 쓰도록 그를 독려하고, 이후 에세이 『파리는 날마다 축제(A Moveable Feast)』와 유작으로 남은 『해류 속의 섬들(Islands in the Stream)』, 『에덴동산(The Garden of Eden)』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한다.

위대한 작가이기 이전에 지극히 인간적인 중년 남자였던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작가로서만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를 느낄 때 중요한 전환점이 된 뮤즈와의 각별한 인연을 정리한 흥미로운 전지다.

<목차>

머리말

1장. 그곳으로 오다

2장. 코르티나로 가는 길

3장. 베니스

4장. 빌라 아프릴레

5장. 핀카 히비아(Finca Vigía)

6장. 파리-베니스-파리

7장. 웅크린 야수

8장. 춤을 출까요

9장. 목가적인 바다 풍경

10장. 사파리

11장. 질병(La Enfermedad)

맺음말

<저자 소개>

안드레아 디 로빌란트(Andrea di Robilant)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국제외교를 공부했다. 저서로는 『A Venetian Affair』, 『Lucia』, 『Irresistible North』, 『Chasing the Rose』가 있다.

제목 : THE HEALTH OF NATIONS

가제 : 전염병 없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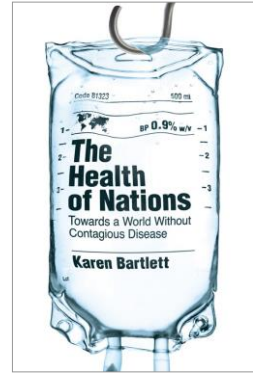
저자 : Karen Bartlett

출판사: Oneworld Publications

발행일: 2017년 4월 11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건강/의료



★ “공중보건, 그리고 보건과 정치의 상호관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책에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낄 것이다. 전염병학과 공중보건분야 종사자들이 겪는 문제들이 눈길을 사로 잡는다.” - 「라이브러리 저널」

★ “탄탄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 - 「초이스(Choice)」 매거진

1-2년 전부터 지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이유 중 하나는, 의학과 백신이 발달하기 전이나 횡행했을 법한 ‘전염병’이 가난한 나라는 물론 21세기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선진국에도 여지 없이 영향을 끼쳤다는 점 때문이다. 말라리아, 뎅기열, 소아마비, 홍역 같은 질병은 ‘백신을 맞으면 되는 일’로만 생각할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일명 ‘생활 질환’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저자는 전염병이, 천연두 이후로 여전히 확실하게 ‘근절’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에드워드 제너가 소 젖 짜는 여성들을 유심히 관찰하여 백신의 효용성을 세상에 알린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의학은 그 때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달했지만, 그 외 전염병은 크게 줄어들기만 했을 뿐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저자는 바로 우리 눈앞에 환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세계 어딘가에 남아 있는 이 전염병이 국제사회 전체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무엇이 전염병 퇴치라는 목표를 가로막는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역사적인 사례들과 함께 분석한다.

소아마비가 아직도 전염이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인도에서는 ‘국제 소아마비 퇴치협회’가 빛나는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엄청난 규모로 백신 접종을 위해 애쓰고 있다.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산간벽지 마을에는 헬리콥터와 오토바이, 낙타까지 동원하여 무조건 찾아간다. 인도 전역에 설치된 백신 접종 부스만 64만 곳에 이르고 230만 명이 2억 명 분량의 백신을 접종한다. 이들이 일일이 찾아가는 집만 1억 9천만 호라는 집계도 나와 있다.

저자는 이 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아직 남아 있는 끔찍한 전염병 중 한두 가지만 근절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건강 관련 비용과 해외 원조금을 줄일 수 있고, 개발도상국의 전체적인 생산성과 경제적 수익이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절감된 비용은 음식과 집, 일할 곳이 나날이 부족해지는 현실에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고, 전혀 무관할 것 같지만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힘의 균형까지도 전염병 근절로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럼에도 빈곤과 전쟁의 악순

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들을 떠올릴 때, 어쩌면 그저 몽상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 전염병 퇴치는 분명 가능한 목표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

1980년대에 완전히 몰아낸 천연두와의 전쟁을 시작으로, 이 책은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공중보건 분야 봉사자들과 과학자들이 소아마비, 말라리아, 홍역 등의 전염병도 똑같이 없애기 위해 그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이들의 열정과 개인적인 희생, 문화도 목표도 너무나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이례적인 협력 관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사회운동가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저자는 최첨단 기술과 캠페인 현장에서 전통적으로 활용된 방식을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도 함께 제시한다. 그저 관망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전염병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1. 천연두를 무너뜨린 히피들
2. 불구자
3. 소아마비와 최후의 저항
4. 빌 게이츠, 그리고 마지막 1 퍼센트
5. 선지자
6. 모기의 집
7. 자유 또는 죽음 - 백신 반대 운동
8. 에볼라: 피할 수 있는 위기
9. 유산

결론

<저자 소개>

카렌 바틀렛(Karen Bartlett)은 저널리스트이자 영화감독, 저술가다. 「선데이타임스」, 「타임」, 「가디언」, 「뉴스위크」, 「뉴 스테이츠맨」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인권 단체 'Charter88'의 대표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Dusty: An Intimate Portrait of a Musical Legend』와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AFTER AUSCHWITZ』 등이 있다.

제목 : THE IMMEASURABLE WORLD

가제 : 사막이 내게 알려준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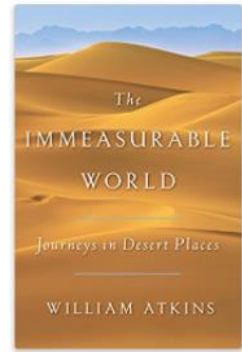
저자 : William Atkins

출판사: Doubleday

발행일: 2018년 7월 24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여행에세이



★ 이탈리아 판권 계약

★ “인간과 자연의 놀라운 역사에서 시작되어 꿈 같은 저자 개인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절묘한 글이 황폐한 땅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기발하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 – 『Leviathan or, The Whale』의 저자 필립 호어

우리 삶에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지만 여행도 전혀 뜻밖의 이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여행지도 마찬가지여서, 오래 전부터 꼭 가고 싶었던 곳을 마침내 가게 될 수도 있지만 우연히 본 영화의 한 장면, 책의 한 구절, 누군가의 이야기에 그곳이 어떤 곳이든 얼마나 멀리 꼭 가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한다.

한 집에서 함께 살던 사람이 외국으로 떠난 뒤 딱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연구라는 명목으로 영국 남서부, 다투어 인근 시토 수도회의 시설에서 일주일을 머무르던 저자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 수도원에 딸린 도서관에서 이런저런 책을 뒤적이던 중, 3세기에 이집트 사막 지역에 은거하면서 수도 생활을 이어갔던 일명 ‘사막의 신부들’에 관한 이야기를 접한 것이다. 공동 수도 생활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 중에서도 주변 수도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 성 안토니오의 삶이 특히 저자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이집트 북부의 부유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열아홉 살에 부모님을 잃고, 길을 가다 들른 교회에서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 소유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성경 말씀을 듣는다. 그 길로 재산을 모두 기부하고, 어린 여동생은 수녀원에 들어가도록 한 뒤 자신도 수도자로 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다. 무엇보다 벨라스케스를 비롯한 여러 화가의 손에서 탄생한, 성 안토니오와 사도 바울이 사만 한 칸에서 만나는 장면은 저자에게 강렬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왜 사막이어야 했을까? 사막은 어떤 곳일까?

이 호기심을 동력으로 전 세계 다섯 대륙, 여덟 곳의 사막을 여행하며 저자가 배우고 느낀 사막의 생생한 모습과 역사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총 3년간 이어진 저자의 사막 여행을 기록한 이 책은 과학과 역사, 지리적 탐구 결과이자 오직 사막만이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독특한 심적 변화를 표현한 글이다.

사막은 지구 전체 지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광활하지만 물기 하나 없이 건조하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린 곳이자 혹독한 기후적 특성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탐험가들조차 쉽게

다가가지 못한 신비의 땅으로 여겨졌다. 달 표면 같은 지형, 살아 숨쉬는 생명을 찾아보기 힘든 공허한 공기는 처음 본 여행자에게 마치 금지된 장소에 온 것 같은 두려움을 안겨 주지만, 떠돌아다니던 유목민들에게는 사막이 집이자 안식처였다. 저자는 텅 비어 있는 땅이라는 뜻으로 ‘앰티 쿼터’라 이름 지어진 세계 최대의 사막과 함께 호주의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등 다양한 사막을 직접 두 발로 찾아가서, 인간의 끝없는 정복 욕구에도 끝내 길들여지지 않은 사막의 매력적인 특성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전한다.

더불어 아무 것도 살지 못할 것 같은 땅에 수도원과 소유지의 경계를 알리는 벽을 세운 사람들, 심지어 핵 시설까지 들어서게 된 배경과 저자에 앞서 사막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에 매료되어 탐험에 나선 토머스 에드워드 로렌스와 거트루드 벨의 이야기까지, 풍성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세상에서 가장 외딴 곳, 사막을 인간이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또 인간의 접근 방식에 따라 사막은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 배울 수 있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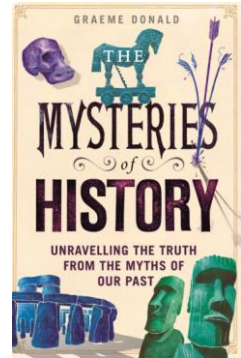
머리말

1. 사막 도서관 - 앰티 쿼터, 오만
2. 천둥의 땅 -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호주
3. 트러블 메이커 - 고비 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 중국
4. 철갑상어 - 알라쿰, 카자흐스탄
5. 거대한 불길 사이에서 - 소노란 사막, 미국
6. 장소와 무관한 일 - 블랙록 사막, 미국
7. 내면의 산 - 동부 사막, 이집트

<저자 소개>

윌리엄 앳킨스(William Atkins)는 예술사를 공부하고 팬 맥밀란(Pan Macmillan UK)에서 편집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프리랜서 편집가로 일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저서 『The Moor』는 2015년 트웨이스트 웨인라이트 상(Thwaites Wainwright) 후보로 선정됐다.

제목 : MYSTERIES OF HISTORY
가제 : 추리소설 같은 ‘진짜’ 역사
저자 : Graeme Donald
출판사: Michael O'Mara
발행일: 2018년 4월 19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역사



***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역사 속 사건, 인물을 파헤친 흥미로운 역사서**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 테니슨이 쓰고 그의 육성 낭독까지 남아 있는 시 <경기병 여단의 공격(The Charge of the Light Brigade)>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누군가 큰 실수를 저질러 / 죽음의 계곡에 들어가면서도 / 전속으로 내달린 경기병 여단 / 잘못된 명령인 줄 알면서도 / 대꾸하지도 이유를 묻지도 않고 / 죽음을 향해 돌격한 600명의 경기병 여단’

크림 전쟁이 한창이던 1854년 10월, 흑해 연안에서 벌어진 발라클라바 전투에서 러시아군의 거점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던 영국 경기병대 병사들을 기리고 찬양하는 내용의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군가의 실수, 잘못된 명령이라는 표현이다. 600명이 넘는 병사들이 무려 23배나 더 많은 러시아군 진지로 돌진한, 지극히 무모한 이 공격으로 단 10분만에 애꿎은 목숨이 350명 가량이나 사라졌지만, 영국군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진실을 덮는데 급급했다. 영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은, 끝까지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파헤친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저 용감하게 싸운 영국군의 전투 중 하나로 역사에 남았을 것이다.

저자는 후대 사람들은 남겨진 기록과 유물로만 알 수 있는 과거의 사건, 인물들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되고도 발라클라바 전투처럼 진실보다 틀린 버전의 역사가 더 당연하게 알려진 사례를 모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역사는 사람들이 동의하기로 뜻을 모은 버전의 과거”라는 나폴레옹의 말처럼,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로 감쪽같이 다른 내용으로 둔갑해버린 전 세계 역사와 누가, 왜 그런 거짓말을 시작했는지 추적한 이야기는 놀라움과 함께 정확한 역사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파스칼의 이야기 속 주인공, 클레오파트라는 뛰어난 미모와 더불어 침대에 누워 일부러 뱀을 풀어놓고 자살한 이집트 출신의 여왕으로 유명하다. 고대 화폐나 조각상 등에 묘사된 모습을 보면 통통한 체형에 매부리코, 남성적인 외모인데다, 이집트가 아닌 그리스 출신에 독약을 마시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어쩌다 우리에게서 그런 인물로 알려졌을까? 어린 나이에 프랑크 군을 이끈 여전사로 영웅이 된 잔다르크, 우리도 어린 시절 위인전으로 접한 이 소녀가 실제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거나, 있었다 한들 군대를 이끈 적은 없다면? 『동방견문록』의 저자 마르코폴로가 중국에 가서

쿠빌라이 칸의 ‘오른팔’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사실 그는 중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터키까지밖에 가지 못했으며, 그곳에서 진짜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과 만나 그들이 전달해준 내용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알렸을 뿐이다. 교황 조안도 중세 시대에 가톨릭 교회 전체를 속이고 여자의 몸으로 교황 자리에 올랐다고 알려졌지만 역사상 여자 교황은 한 명도 없었고, 네로 황제는 로마에 엄청난 불을 질러버린 범인으로 낙인 찍혔지만 그가 살아 있을 때부터 주장했듯이, 실제로 로마에 불씨를 떨어뜨린 진범은 기독교인들이었다.

저자는 이와 같이 편향된 견해로 얼룩진 역사 기록들로 만들어진 뿌연 안개 같은 혼란을 걷어내고, 대다수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만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확인된 ‘진짜’ 역사를 이 책에서 전한다. 어쩌다 거짓이 그토록 급속하게, 널리 알려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한 내용은 추리소설처럼 흥미롭다.

<목차>

머리말

1. 교묘한 속임수

- 잔다르크: 프랑스가 좋아하는 (상상 속) 인물
- 에르제베트 바토리: 진짜 드라큘라 백작
- 의사 제임스 배리: 불가피한 위장 등

2. 탐험을 위한 항해

- 신기한 책: 마르코 폴로가 들려준 중국 이야기
- 미국: 누가 가장 먼저 도착했을까?
- 지어낸 거짓말: 호주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 등

3. 가장 잔혹한 살인

- 클레오파트라와 코브라: 이집트 마지막 여왕의 죽음
- 매독인가 살리에르인가: 모차르트의 사인
-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된 농부: 라스푸틴의 죽음 등

4. 의식과 종교의 수수께끼

- 대피라미드 미스터리: 누가, 왜, 어떻게 등

5. 갈등과 재앙

- 캘커타의 블랙홀: 탐욕으로 빚어진 거짓말
- 스페인 정복자들의 침략: 잉카인들, 그리고 아일랜드인들 등

<저자 소개>

그레엄 도널드(Graeme Donald)는 『When the Earth was Flat』, 『The Accidental Scientist』, 『The Long and the Short of It』 등 역사와 단어의 의미, 널리 알려진 잘못된 정보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썼다. 다양한 신문에도 글이 실렸다.

제목 : THE LITTLE BOOK OF KINDFULNESS

가제 : 나에게 먼저 친절해지는 법

저자 : Caroline Millington

출판사: Anima

발행일: 2018년 10월 4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친절한 사람이 되는 법, 그곳에서 시작되는 행복과 건강**

우리는 거울을 볼 때마다, 방송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본 사람들의 몸매와 멋진 외모를 떠올리면서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다. 키가 조금만 더 크면, 얼굴이 좀 작았으면, 허리가 ‘그 사람들’처럼 더 날씬하면 왠지 더 행복해질 것 같은 기분을 누구나 느껴봤으리라.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심리는 비단 유명인들이 아니라 주변에서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고 그 영역 또한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함께 일하는 저 동료만큼만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웃집 사람처럼 집을 깔끔하게 치우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친구만큼 성격이 유쾌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자꾸만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든다.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불품없는 사람, 가장 지루한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축 쳐져 살아가는 이들에게 저자는 ‘친절’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다. 남이 아닌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진 장점에 집중하는 것, 거기에서 만성적인 우울함과 특별한 원인이 없는 건강 문제가 많은 부분 해결된다는 것이 저자가 이 책에서 전하는 핵심이다. 자기 비판이 일상이 된 삶, 어쩌다 저지른 실수를 곱씹으며 한탄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태도는 누구나 하나쯤, 아니 그 이상 보유한 자신만의 장점을 갉아먹는 지름길이다. 저자는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알면 모든 것이 바뀐다고 단언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심리 치료사,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기계발 코치들과의 대화와 인터뷰, 다양한 자기계발서가 제시해온 조언들을 분석하여 솔직하고 친근한 변화의 길을 알려주는 이 책은 첫머리에 ‘내가 느끼는 나’ 퀴즈가 제시된다. 책 마지막에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제시하여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겼는지 독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장마다 ‘친절 실천 과제’와 뇌 훈련 방법 등 가만히 글을 읽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따라 하면서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저자가 ‘DIY’로 명명한 이 같은 인터랙티브 섹션은 수동적으로 조언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꼼꼼하게 따라가고,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얼마나 바꿔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지난 며칠, 몇 주간 일어난 일들을 상기하여 기분과 생각을 메모해가면서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 더불어 저자가 권하는 친절의 실천 요령을 일인칭 시점으로 풀어낸다.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자신에게 먼저 친절하면서부터 삶의 균형을 찾아 이유 없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저자가 17년간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가까이 지낸 유명인들과 전문가들도 나름의 타개책을 전한다.

자신을 바꾸되 지나치게 자신을 깎아 내리는 태도 대신 일터와 대인관계에 명확한 목적 의식을 키우고, 자연스레 일어나는 기분과 감정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준다.

<목차>

1. 친절이란 무엇일까?
2.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3. 친절 명상
4. 마음을 위한 친절
5. 몸을 위한 친절
6. 관계를 위한 친절
7. 일을 위한 친절
8. 소셜미디어와 친절
9. 친절해지는 것 =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해지는 길
10. 감사함
11. 나의 친절함에 관한 이야기
12. 더 읽을거리

<저자 소개>

캐롤라인 밀링턴(Caroline Millington)은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TV 방송 일을 시작했다. 현재 ITV 프로그램 ‘Loose Women’의 소셜미디어 매니저로 일하기 시작했다.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WEIGHT OF A THOUSAND FEATHERS

가제 : 깃털의 무게

저자 : Brian Conaghan

출판사: Bloomsbury YA

발행일: 2018년 6월 1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2016년 코스타 아동도서상 수상작 『Bombs That Brought Us Together』 작가의 신작

★ 패트릭 네스(Patrick Ness), 멜로리 블랙맨(Malorie Blackman), 멜빈 버제스(Melvin Burgess)의 팬들에게 사랑 받을 만한 이야기, 감동과 위트, 진솔함이 가득한 소설

엄마와 세 살 어린 동생 대니의 유일한 ‘보호자’가 된 바비에게 가족 모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 2년 전부터 큰 병에 시달리는 엄마가, 지긋지긋한 신체적 고통과 어쩌면 그보다 클 정신적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한 것이다. 병원에서 공식적인 진단을 받기 전, 열네 살 때 이미 엄마의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2년 넘는 시간 동안 엄마가 마치 낯선 사람처럼 몸도 정신도 망가져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 애써온 바비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가 없다. 거의 매일 밤 엄마가 죽는 악몽을 꾸지만 정말로 엄마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지, 동생 대니는 어떻게 돌봐야 하고 바비 자신의 미래와 인생은 또 어떻게 될지, 무엇보다 엄마의 결심처럼 그 고통을 일찍, 고의로 끝내버리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아무 것도 확실할 수 없다. 바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뚜렷 증후군을 앓는 십대 소년을 주인공으로 삼아 남들과 많이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룬 데뷔작 『Mr Dog Bites』로 카네기 메달 후보에 오른 작가가 이번에는 다발성 증후군을 앓는 엄마와 학습 장애가 있는 동생을 홀로 돌보는 바비의 이야기를 솔직함과 가슴 찡한 감동, 십대만의 명랑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선으로 전한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건 바비가 열네 살 때의 일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바비가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들을 늘어놓으면 엄마가 하나하나 잔소리하는 장보기가 이어지던 중, 엄마는 픽 쓰러져 진열대에 쌓인 과일과 야채더미를 쓰러뜨리고 넘어져버렸다. 정신을 잃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카트도 밀지 못할 정도로 기운이 다 빠진 엄마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담아오라고 해서 바비를 더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발이 쑤시고, 다리에 근육통이 통가시질 않아 몇 개월을 병원에 들락거리긴 했지만 쓰러진 건 그 때가 처음이었다. 그 때 어렵פות

이, 바비는 초콜릿이든 콜라든 다 필요 없고 그냥 엄마만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엄마는 나중에, 바로 그 날부터 삶이 와장창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엄마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다가 결국 집안 침대에 꼼짝 없이 누워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되자, 바비는 조금이라도 엄마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뭐든,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쁜 마음으로 씩씩하게 해냈다. 몇 킬로미터씩 걸어서 약을 타고, 제때 엄마에게 진통제를 주고, 일주일에 세 번씩 직접 엄마를 씻기고, 용변 본 뒤에 뒤처리까지 도맡아 해왔다. 엄마는 통증 때문에 정신이 더욱 예민해져서 이것저것 원하는 것도 많고, 한창 돌봐줘야 하는 아이들을 챙기지는 못할 망정 자신이 아기처럼 이렇게 절대적으로 자식의 손길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수시로 절망에 빠진다. 바비는 그런 엄마의 마음까지 헤아릴 줄 아는 아이라, 엄마가 고개를 들고 깔깔 웃음을 터뜨리도록 만드는 솜씨도 부린다.

바비의 하나뿐인 동생, 세 살 어린 열네 살 대니도 바비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이다. 여섯 살 때부터 또래 아이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드러났지만 엄마는 대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작은 괴물처럼 고래고래 고향치고 욕하고 때리고 난리를 치는 것뿐인데 지적 장애라는 딱지를 붙이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왜 엄마는 맨날 누워만 있는지, 왜 학교에서 만나는 다른 친구들 엄마들이랑 다르냐고 묻는 대니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위로해주는 것도 바비의 몫이다.

다행히 바비에게는 한 가족처럼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 유일한 친구이기도 한 벨은 대니가 과잉 흥분 상태가 될 조짐을 보일 때면 살살 구슬려서 진정하게 만들고, 바비가 바쁠 때는 대신 엄마를 돌봐주기도 하는 정말 고마운 친구다. 딱 한 번, 둘 다 집안일로 속상해서 몰래 술을 조금 마셨을 때 벨은 바비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바비는 아무 것도 기억 못하는 척 하는 것으로 소중한 우정에 금이 가지 않도록 잘 수습했다. 바비에게 벨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지만 이성인 아님, 여자 사람 친구일 뿐이었다.

어느 날, 바비의 상황을 잘 아는 학교 선생님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청소년 보호자들의 모임에 참석해보라고 권한다. 어른이 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어른 노릇을 해야 하는 아이들이 모여 서로의 애환을 공유하고, 심리 상담도 받는 프로그램이었다. 바비는 한참을 주저하다 용기를 내어 모임에 나가고, 그곳에서 만난 루라는 친구에게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 뛰는 감정을 느낀다. 상담 모임에도 나가고, 잠 못 드는 밤이면 시를 쓰며 견디던 바비는 절망의 늪에 빠진 엄마에게 그만 이 고통을 끝내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받고 갈림길에 놓인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온 마음을 다해 바비를 응원하게 되는, 따뜻하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 소개>

브라이언 코나한(Brian Conaghan)은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다. 처음으로 쓴 YA 소설, 『Mr Dog Bites』는 2015년 카네기 메달 결선 후보작으로 선정됐고 두 번째 소설 『Bombs That Brought Us Together』로 2016년 코스타 아동도서상을 수상했다. 카네기 메달 수상작가 새라 크로산과 함께 쓴 『We Come Apart』도 2017년에 출간되어 큰 호평을 받았다.

제목 : THE CHILDREN OF CASTLE ROCK

가제 : 캐슬록의 아이들

저자 : Natasha Farrant

출판사: Faber & Faber

발행일: 2018년 3월 1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미국, 프랑스 판권 계약 체결**

*** “흡입력 있는 모험으로 그치지 않는다. 친구들과 가족을 조금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이야기. 밤 새워서 다 읽었다!” – 『Letters from the Lighthouse』의 작가 엠마 캐롤**

*** “클래식한 느낌이 결합된 멋진 현대 소설” – 「북셀러」**

체리 열매가 한창 열리는 계절에는 2층 창문에서 팔만 뻗으면 통통한 체리를 바로 따 먹을 수 있는 곳, 100년도 더 전에 지어져 낡고 여기저기 금이 간 곳도 많지만 따스함과 평온함이 널찍한 마당에도 집안 구석구석에도 깊이 배어 있는 미술스웨이트 가문의 집, ‘체리 그랜지’가 앨리스와 아빠, 그리고 고모를 끝으로 다른 집안에 넘어가고 말았다. 열한 살 앨리스는 엄마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체리 그랜지를 떠나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데, 고모 손에 이끌려 기숙 학교에 입학한다. 그것도 런던과 엄청나게 떨어진 스코틀랜드로! 동화책에도 자주 등장하듯이, 시골에 지어진 큰 기숙 학교치고 끔찍하지 않은 곳이 있을까? 무서운 선생님들과 엄격한 규칙, 끔찍없이 불들려 맛있는 음식을 주는 대로 먹으며 방학만 기다리는 삶을 떠올리다 거부감을 느낀 앨리스는 아빠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하지만, 고모의 고집을 절대 꺾지 못하는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토미 로크 아카데미’에 들어간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를 탈출하고 말겠다는 굳은 결심이 무색할 정도로 토미 로크 아카데미는 앨리스의 예상과 전혀 딴 판인 곳이었다.

대체 왜 체리 그랜지를 팔아야만 하는지 아빠도 고모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앨리스는 4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았으리라 확신했다. 엄마는 가족들의 실질적인 가장이었다. 배우인 아빠는 여기저기 소소한 역할을 맡아서 출연을 하긴 했지만 별이가 거의 없었고, 고모는 늘 작은 방에서 그림을 그리곤 했지만 사람들은 고모의 그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엄마는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회사에 다니면서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을 받아 식구들을 먹여 살렸다. 하지만 앨리스가 일곱 살이던 해,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은 미처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엄마를 집어삼켰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렸다. 늘 유쾌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기막힌 솜씨로 온갖 요리를 똑딱 만들어내며 온 집안을 온기와 웃음 소리로 채우던 엄마가 사라진 뒤 엄마처럼 쾌활하고 조잘대던 작은 소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방안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빈 노트를 펴놓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것이 앨리스의 유일한 낙이었다. 생활력이야 어쨌건 아빠의 1호 팬을 자처하며 언젠가 아빠가 유명한 배우가 되리라 굳게 믿어온 앨

리스는 잦은 출장으로 집에 없는 날이 더 많은 아빠가 오랜만에 돌아오면 그 동안 써둔 이야기를 보여주곤 했다. 아빠 외에는 아무도 못 읽게 하는 앨리스의 글을 몰래 읽어본 앨리스의 고모는 엄마를 잃고 참을해졌지만 예전의 밝고 명랑한 모습이 글 속에는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에 눈시울을 붉힌다. 답답하고 재미 없는 현실과 달리 앨리스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머나먼 곳으로 모험을 떠나고, 무엇이든 과감히 도전하면서 흥미진진한 삶을 살았다. 말수도 확연히 줄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방 안에서 보내는 시간만 즐기는 앨리스도 그 이야기들처럼 신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고모가 과감히 집을 팔고 앨리스를 기숙 학교에 보내기로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스코틀랜드의 오래된 성에 위치한 토미 로크 아카데미는 고모가 바라던 이상적인 학교였다. 수학, 외국어, 암기과목 같은 것보다는 누구나 예술적인 감각 혹은 재능을 하나쯤 반드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발견해서 키워주는 것이 학교의 소명이라고 여긴 설립자의 원칙을 이어 받아 아이들이 자유롭게 개성과 재능을 뽐낼 수 있도록 적극 권장했다. 바디 페인팅 요령을 아주 진지하게 가르쳐주고, 수업 시간에 문법보다 익스트림 어드벤처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더 상세히 알려주는 곳, 토미 로크 아카데미는 누가 시키기도 전에 글을 쓰기 시작한 앨리스에게 꼭 맞는 학교였다.

첫 등교하는 날, 런던 기차역에서 우연히 같은 기차에 올라 대화를 나누면서 급속히 가까워진 제스와 학교 팸플렛에도 등장할 만큼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소년, 퍼거스와 친구가 된 앨리스는 교장 선생님과 성적보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일에 더 열심인 선생님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취미든 공부든 하고 싶은 일들을 실킨 하는 토미 로크 아카데미의 분위기에 깜짝 놀라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볼록 놀이를 하고, 호수에 나가 하루 종일 노를 젓고, 한밤중에 소풍을 가고,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암벽 등반도 배우면서 하루하루 적응해 간다. 그러나 이사과 전학 때문에 내내 혼란스럽던 마음이 겨우 진정됐다 싶었을 때, 아빠에게서 이상한 연락이 온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앨리스는 아빠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놓였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조건 가서 아빠를 돕기로 마음 먹는다.

제스와 퍼거스가 앨리스를 돕겠다고 나서준 덕분에, 세 친구는 스코틀랜드 고원 지대와 크고 작은 섬들을 오가며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모험을 시작한다. 사라진 아빠는 어디로 갔을까? 아빠가 있는 곳을 찾는다고 해도, 열한 살짜리 어린이 세 명이 정말 도울 수 있을까? 자연 속에서 피어나는 우정과 용기, 자유를 그린 이야기가 작가 특유의 친근하고 다정한 글 속에 담겨 있다.

<저자 소개>

나타샤 패런트(Natasha Farrant)는 2014년 ‘퀸 오브 틴 어워드(Queen of Teen Award)’ 결승에 진출한 작가로, 『Bluebell Gadbsy』 시리즈 중 두 번째 소설 『Flora in Love』로 가디언 아동상 후보에 올랐다. 시리즈 세 번째 『All About Pumpkin』은 WHSmith ‘이달의 도서’로 선정됐다. 그 밖에도 카네기 메달과 브랜포드 보스 상 후보작으로 선정된 역사 소설 『The Things We Did For Love』를 썼다.